

‘불교문화재=국가문화재’ 국민 근본인식 개선부터

연속기획 >

문제인 정부, 이것만은 꼭 ⑥·끝

불교유산 없이 민족, 국가도 없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생활문화 시대’를 언급하며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그러나 민간문화유산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00대 국정과제’서 언급 없어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결맞은 전담부서·협의체 구성도 필요

불교계는 그간 민간문화유산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유산에 대한 정책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9대 대선 당시에는 ‘불교·문화 정책 제안’을 각 대선후보에게 직접 제안하며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와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안에는 불교유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사전 협의 내용도 담겼다. 적어도 불교문화유산에 있어서만큼은 당사자인 불교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교유산에 대한 정부 인식은 그간 소홀했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이는 취약한 제정과 제도로 이어졌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 및 예산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민간소유문화재 비율은 56.1%로 국가소

유문화재(43.9%)보다 높지만, 1건당 예산액은 국유문화재에 비해 10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단과 사찰의 불교 문화유산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리 전담기구를 두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관리 받는 국유문화재와 달리 불교문화재는 일선 사찰에서 스님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단과 사찰, 스님이 ‘당연한 것처럼’ 자진해서 문화재 유지 관리를 맡고 스스로 기금을 모으는 등 불교 유산 보존과 관리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자칫 훼손되거나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출 수 있는 한국 전통문화유산들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데는 불교계의 치밀한 노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을 언급하며 상시 관리 대상 문화재를 확대한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매장문화재조사공영제를 도입해 20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꾸준히 늘린다고도 했다. 그러나 단지 범위 확대에 나선다고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불교문화유산을 국유 문화재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규제 개혁과 법률 제정, 현실적인 재정 지원과 인식 개선 노력 등의 대책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불교문화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종단과 정부 간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정기적으로 불교 정보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종단과 문화재청은 불교문화유산정책협의회 구성에 동의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정현승님은 “불교문화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종단이 참여하는 협의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문화재 중 70%가량이 불교문화재인 상황을 생각해 정부가 먼저 나서 불교유산이 없으면 민족도, 국가도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문성과 일관성 있게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 나갈 때 국민으로부터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여름휴가로 인해 3319호는 8월 9일자 발행합니다

첫 ‘어린이 재가안거’ 현장
부산 대원사 ‘시원합니다~’
3면



행복한 명상캠프 백양사
드림템플스테이 법문사
4면



‘열공’하며 삼복더위를
잊은 불자들
5~7면 ‘신해행증’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널리 알리며
보살사상 만일수행결사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금강경 강송대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응시부문

- I. 개인부문
1. 성인[강송 및 필기] 2. 성인[강송] 3. 학생[강송]
II. 단체부문
1. 성인 2. 학생
※ 개인 / 단체 중복응시 가능, 수행수기 및 금강경 사경 접수합니다.

접수기간 2017년 8월 1일 ~ 10월 31일

지 원 서 소정양식(다운로드)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탄허기념박물관(www.tanheo.org)

- 접수방법 1. 방문 및 우편접수 : 금강선원, 탄허기념박물관
• 금강선원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82길 11 상우빌딩 4층
• 탄허기념박물관 :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4길 13-51
2.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내 접수
3. E-mail 접수 : keumgang-sw@hanmail.net

대회상금

- I. 개인부문
1. 성인[강송 및 필기]: 대상1000만원 최우수상300만원, 우수상100만원
2. 성인[강송]: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30만원
3. 학생[강송]: 최우수상50만원, 우수상30만원, 장려상20만원
II. 단체부문
1. 성인: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20만원, 장려상10만원
2. 학생: 최우수상50만원, 우수상20만원, 장려상10만원
※ 각 부문에 특별상 수여, 수행수기 및 금강경사경 입상 시 상금 지급

시상식 일정 및 장소

일시: 2017년 11월 11일 (토)
장소: 탄허기념박물관(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4길 13-51)

문 의 처 금강선원 사무처 TEL : 02) 445-8484

※ 성인일반부는 강송만 시험보는 강송부가 신설되었습니다. ※ 상금 중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이전 수상자의 경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동일상 수상은 불가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최 오대산월정사, BTN불교TV, 불교신문, 금강선원 주관 금강선원, 탄허기념박물관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교포럼, 서울특별시

일주일에 하루, 매주 목요일에 채식하고
생명살림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채식day 기부day

카카오톡에서 **채식day, 기부day**를 친구추가하세요.

제7회 금강경 강송대회

2017. 11. 4 (토) 탄허기념박물관